

2023-10-30 (2023-39호)

10월 30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변동성 넘어 방향성 이끌 이벤트·경제지표 '수두룩'

서울, 10월3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일본은행(BOJ) 정책회의, 중동 사태 전개 상황 및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등을 소화하며 수시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30-1,380원이다.

고금리 장기화 추세에 더해진 중동 지역 불안에도 최근 달러/원은 1,340-1,360원 안에 머물면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 중이다. 사실상 환율이 1,360원대를 유의미하게 뚫어낼 경우 새로운 '빅피겨' 1,400원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금주는 국제 금융시장 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대외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어 각 자산별 변동성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중동 리스크에도 한동안 변동성이 둔화됐던 국제유가는 전주말 약 3% 올랐다.

현재로선 유가 동향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중동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국면은 아닌 만큼 사태 전개 상황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재의 시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연준 정책회의가 열린다. 정책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터라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연준 스탠스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 경로를 따르지만,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보다 높은 데다 견조한 소비와 고용 및 유가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대한 연준 스탠스 변화를 읽어내기란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에 따른 긴축 효과를 인정하며 파월 의장은 비교적 균형 잡힌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높은 미국 금리와 지정학적 위협 및 세계 다른 지역의 성장 정체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달러 롱포지션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CFTC 데이터에 따르면 투기적 세력들의 달러 포지션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되고 있어 연준 이벤트가 도비시하게 해석될 경우 단기적인 달러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달러가 잠시 약세 전환할 여지는 남겨둬야 할 듯하다.

또한, BOJ 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도 크다. 도쿄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시장 전망 및 9월 상승률 2.5%를 웃돌면서 BOJ의 깜짝 정책 변경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달러/엔의 양방향 변동성에 촉각을 세우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그간 1,350원을 중심으로 레인지 장세를 지켜온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방향을 살피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상방 압력이 대거 확산된다면 상승 추세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월 말 주식 자금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발 변동성도 염두에 뒤야 한다.

한편, 굵직한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중국 10월 국가통계국 PMI, 유로존 3분기 GDP, 미국 10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미국 10월 고용보고서, 한국 9월 산업활동동향, 한국 10월 수출입동향, 한국 10월 소비자물가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30일(월)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2023-28호) (12:00)
-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23년 3/4분기 동향 및 2023년 4/4분기 전망) (12:00)
- ⊙ 한국은행: 총재 한국거래소 MOU (16:00)

10월31일(화)

- ⊙ 통계청: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한국은행: 202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14:00)

11월1일(수)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대한상의 공동세미나 (13: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14:00)

11월2일(목)

- ⊙ 통계청: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 ⊙ 한국은행: 총재 지역경제 심포지움 (14:00)

11월3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10월말 외환보유액 (0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3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0월30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10월		-0.36
10월30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0월	93.3	93.3
10월30일	19: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0월	-17.9	-17.9
10월30일	23:3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18.10
10월31일	08:30	일본	실업률	9월		2.7%
10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YY	9월		-4.4%
10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9월		7.0%
10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10월		50.2
10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10월		51.7
10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0월		35.2
10월31일	14:00	일본	건설주문 YY	9월		-4.3%
10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9월		-9.4%
10월31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0월	3.4%	4.3%
10월31일	19: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3분기	0.2%	0.5%
10월31일	21:30	미국	고용비율	3분기	1.0%	1.0%
10월31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8월		0.8%
10월31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8월		0.9%
10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10월		44.1
10월31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0월	100.0	103.0
11월1-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0월		1,237.2B
11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10월		48.5
11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0월		50.6
11월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27일주간		165.2
11월1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	10월		89k
11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0월		50.0
11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9월	0.4%	0.5%
11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10월	49.0	49.0
11월1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9월		9.610M

11월2-9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10월		3.210M
11월2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0월	43.0	43.0
11월2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0월		47.457k
11월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23일주간		210k
11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9월		4.7%
11월2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9월	1.0%	1.2%
11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월		50.2
11월3일	19:00	유로존	실업률	9월	6.4%	6.4%
11월3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0월	172k	336k
11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0월		50.9
11월3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0월		53.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30일 (월)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31일까지)

10월31일 (화)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분기 성장 및 물가 전망 발표, 우에다 가즈오 총재 기자회견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1일까지)

11월1일 (수)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2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오전 3시30분)

11월2일 (목)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오후 8시)
- ⊙ 케이틀린 오닐 페이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주최 강연 행사 환영사 (3일 오전 7시30분)

11월3일 (금)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주택 관련 컨퍼런스 참석 (오후 9시)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커뮤니티 재투자법 관련 화상 토론 참석 (4일 오전 4시30분)
- ⊙ 휴장국가: 일본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일본은행의 서프라이즈?

오는 31일은 할로윈데이로,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일본은행(BOJ)이 정책을 발표하기에 딱 적합한 날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라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주일간 10년 만의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이번 회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10년물 수익률 고점은 0.885%로, 여전히 BOJ의 1% 상한선을 밑돌고 있지만, BOJ가 평균 주 2회 풀로 긴급 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 최근 1.0863%까지 상승한 것은 BOJ의 개입이 없었다면 10년물 수익률이 어디까지 상승했을지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부양책 제거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지난 7월 말 깜짝 조정을 단행하기 직전에도 그가 경기부양책 유지 발언을 내뱉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애플 실적 발표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오는 11월2일 애플이 출격한다.

애플은 다른 초대형 기술주 및 성장주와 함께 주가지수 상승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S&P500지수가 올해 고점을 찍은 7월 말 이후 급격히 후퇴했다.

알파벳과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후 하락하는 등 이미 발표된 초대형주의 실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맥도널드, 31일 캐터필라와 화이자, 11월2일에는 스타벅스와 일라이릴리 등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연준의 금리 경로

11월1일에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투자자들은 경제 상태와 금리 전망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들의 견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여전히 내년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생각이 엇보인다면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은 15년여 만의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S&P500지수의 급락에 기여했다. S&P500지수는 7월 말 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이상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8% 가까이 오른 상태다.

⊙ 영란은행의 딜레마

영란은행도 오는 2일 정책회의를 갖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2023년 첫 번째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율은 10.1%, GDP 증가율은 전년비 1%, 금리는 3.5%였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금리는 5.25%로 상승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6.7%로 유로존의 4.3%나 미국의 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영란은행도 금리가 당분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은 내년에 적어도 한 차례, 어쩌면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 비트코인 상승세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달 초 비트코인은 블랙록의 ETF 신청이 승인됐다는 오보에 급등했었고, 지난 주에는 블랙록이 계획하고 있는 ETF가 중앙예탁청산기관의 웹사이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에 투기세력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고점인 69,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1년 전 붕괴된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트의 사기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 엔화 가치 회복, 오래 걸릴 듯

싱가포르, 10월27일 (로이터) -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수 있다는 일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 대비 엔 강세를 조금씩 유도할 수 있지만 최근 달러의 완고한 강세로 그러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또 엔화에 대한 개입 리스크와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자금 조달 통화이자 안전자산 통화로서의 엔화의 매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홍콩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시아태평양 외환 거래 책임자인 패트릭 로는 "올해 초만 해도 모두가 달러/엔이 12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확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는 올해 달러 대비 13% 절하됐고, 1년 전 정부 개입을 촉발한 30년 만의 최저치인 151.94엔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72.4로 국제결제은행이 199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일본은행(BOJ)이 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채권 수익률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도 엔화는 하락했다. BOJ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엔화 랠리가 촉발될지 의문이다.

옵션 시장도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극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엔화 1주일 내재 변동성JPYSWO=은 31일 BOJ 회의를 앞두고 급등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만기물은 이달 18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일본이 엔화 강세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도쿄 미즈호 증권이 수석 통화 전략가인 야마모토 마사후미는 "BOJ가 움직인다고 해도 너무 무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미국 수익률의 변동보다 (영향력이) 훨씬 작다"라며 "달러/엔은 미-일 수익률 격차로 인한 것이며 미-일 수익률 격차는 미국 경제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금XAU=, 스위스프랑CHF=EBS 등 다른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였지만 엔화는 BOJ가 초저금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한 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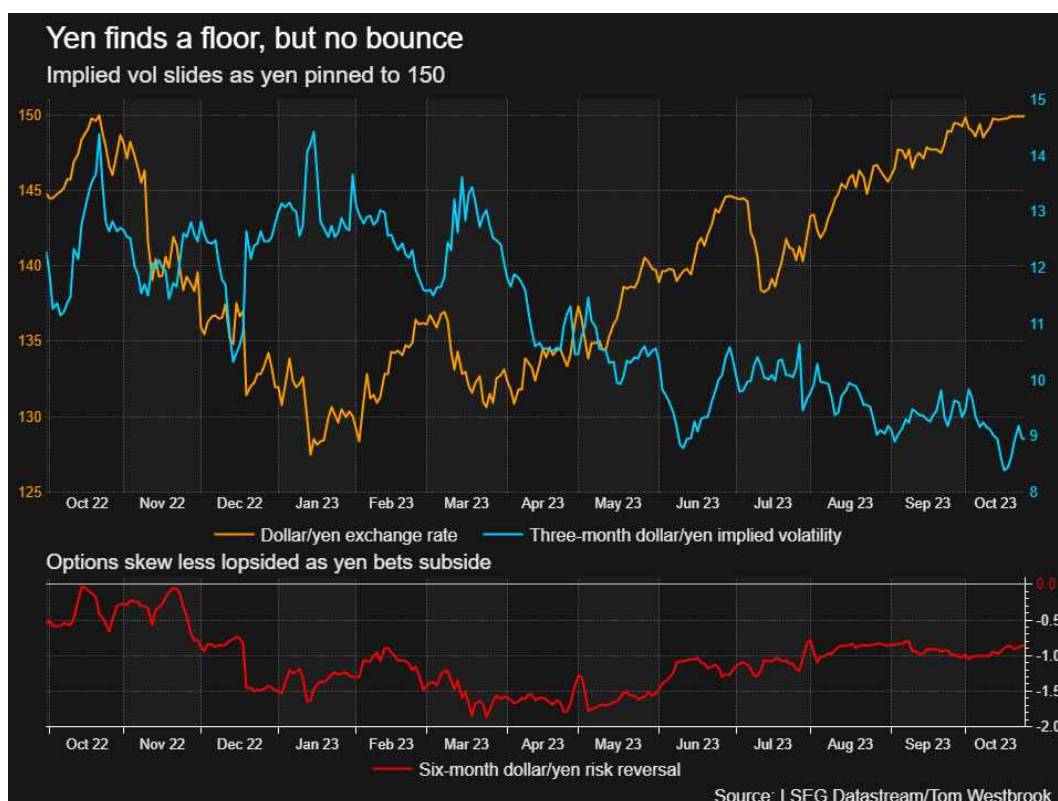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정책결정자들이 허용하는 한도인 1%를 향해 꾸준히 상승해왔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소수의 이코노미스트들만 다음 주 BOJ 회의에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부분은 내년야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BOJ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개입 위험과 함께 엔화의 가파른 하락을 막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 자산관리부문 아시아 투자서비스 책임자인 사팔리 삭데브는 "엔화를 자금 조달 통화로 쓰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고, 투자자들은 엔화 자산에 대한 장기 익스포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는 엔화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라고 조언했다. 씨티 전략가들은 엔화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한다는 데 베팅하는 콜 매수 포지션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 전략가들은 "BOJ 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